

도내 고교 야구선수 “꿈 이뤘다”

군산상고 김동준·전주고 김찬민·한승연·인상고 전희범 등
‘2022 프로야구 2차 신인드래프트’서 5명 프로팀에 지명돼

도내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꿈이 이뤄졌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2022 프로야구 2차 신인드래프트에서 전북지역 야구부 학생선수 5명이 프로팀에 지명됐다. 올해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는 총 1,006명이 신청 이 중 110명이 프로선수가 되는 기회를 잡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북지역 야구부 학생선수 5명이 프로팀에 지명된 것은 쾌거라 할 수 있다. 먼저 군산상업고등학교 김동준 선수(투수)가 1라운드 9순위로 두산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또 전주고등학교 김찬민 선수(투수)는 4라운드 35순위, 한승연 선수(외야수)는 8라운드 75순위로 기아타이거즈에 지명됐다. 이와 함께 인상고등학교 전희범 선수(외야수)는 4라운드 39순위로 두산베어스에, 황동하 선수(투수)는 7라운드 85순위로 기아타이거즈에 뽑혔다. 여기에 군산상고를 졸업한 김민수 선수(내야수·연세대)도 10라운드 96순위로 키움하어로즈에 선발됐다. 전북지역 야구부 학생선수들의 이같은 성과는 선수, 학부모, 학교구성원의 협업과 함께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운동하는 모든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정책의 결과다. 지난 몇 년간 전북 고교야구의 잠재기에서도 서열화와 성적지상주의를 지양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이뤄낸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제55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인상고등학교가 4강에 진출했고, 9월 5일 막을 내린 제76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군산상고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프로팀 지명이 크게 늘면서 도내 야구 꿈나무들이 프로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으로 앞으로 더 많은 학생선수들이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 지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사진 왼쪽부터)최영일 이사, 샘 해밍턴 이사, 권병규 감사, 조원희, 김수정 사진작가, 조병득 이사장, 박승국 감사, 박지혜 아나운서, 현영민 이사, 이영표 이사, 이수민 사무국장.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해요’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하반기 활동 계획 밝혀
축구 원로 의료비 지원 등... 신임 이사진 합류 새 동력 확보

대한축구협회(KFA)가 설립한 KFA축구사랑나눔재단이 신임 이사진 및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1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이사회에는 신임 이사들이 참석해 기존 이사와 인사를 나눴다. 올해 새롭게 선임된 이사는 조병득 신임 이사장을 포함한 이천수 KFA 사회공헌위원장, 현영민 JTBC 해설위원, 김태원 구글 코리아 전무이사과 방승민 김승현, 샘 해밍턴 등 6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나눔재단 이사로 승인됐다. 이로써 나눔재단 이사진은 기존 이사 3명(최영일 KFA 부회장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과 신임 이사 6명을 합쳐 9명으로 구성됐다. 조병득 신임 이사장은 “나눔재단이 KFA의 또 다른 얼굴로서 축구인과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사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K3·4리그 산하 유소년팀 및 지역 내 유소년 발전을 위한 축구용품 지원사업에 중점 지원과 여자 대표팀 지소연(첼시)을 추가 선임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지소연의 이사 선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임 이사진이 합류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 나눔재단은 하반기 활동 계획도 밝혔다. 현재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KFA 국가대표 선수들의 고민 해결’을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해 진행한다. OB축구회와 연계해 축구에 헌신해온 원로 중에서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선정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이 밖에도 미혼모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팬타지움 힘(休) 프로그램’, 장애인들의 사회적 합의를 돕는 ‘드림KFA Friendly’, 보호종료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KFA [The 위로]’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도울 예정이다. /뉴시스

최지만, 시즌 10호포 결승 홈런으로 장식

탬파베이, MLB 토론토전서 2-0 이거

최지만(30·탬파베이 레이스)이 시즌 10호포를 결승 홈런으로 장식했다. 최지만은 1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2회초 솔로 홈런을 날렸다. 0-0으로 맞선 2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최지만은 볼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상대 우완 선발 투수 호세 베리오스의 3구째 시속 98마일(약 150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노려쳐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시즌 10호 홈런이다. 최지만은 개인 한 시즌 최다인 19개의 홈런을 때려낸 2019년 이후 2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최지만은 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의 단축 시즌을 치른 지난해에는 정규리그에서 3개의 홈런을 쳤다. 탬파베이는 2-0으로 승리해 토론토의 5연승을 저지했다. 탬파베이가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면서 최지만의 선제 솔로포가 결승타가 됐다. 최지만은 결승 홈런을 포함해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 팀 승리에 큰 힘을 더했다. /뉴시스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1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2회초 솔로 홈런을 때려낸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축구 유망주 발굴 ‘골든 일레븐 시즌2’

대한축구협회(KFA)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축구 유망주 발굴을 위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골든 일레븐 시즌2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이하 골든 일레븐)’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골든 일레븐은 축구 기술 습득이 가장 빠른 시기를 가리키는 ‘골든 에이지(Golden Age)’와 국가대표팀 베스트11(일레븐)을 합친 말이다. KFA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축구팀

을 조성하고, 재능있는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축구에 관심 있고 소질이 있는 만 10세부터 12세까지 남녀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며, 선착순으로 2000명을 모집한다. tvN 홈페이지(<http://program.tvn.com/tvn/golden11>)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골든 일레븐은 전국 4개 권역에서 열리는 예심을 포함해 총 네 차례에 걸친 공개 테스트를 통해 최종 11명을 선발한다. /뉴시스

Real Fresh
참프레
CHARMFRE

동물복지 닭고기

“가족의 건강에 답하다”

“참! 착하게 키웠습니다”